

成長과 分配：그 理論과 現實의 한 考察

朱 鶴 中

| <目 次> | |
|----------------|--|
| I. 序論 | |
| II. 經濟學界의 一般認識 | |
| III. 行態論的 認識 | |
| IV. 政策的 示唆와 對應 | |
| V. 要約 및 結論 | |

I. 序 論

社會科學으로서 經濟學의 課題는 時代에 따라 學界의 認識의 變化와 強度에 따라 變化해 왔다. 지난 20여년간 經濟學界에 큰 關心이 되어 왔던 課題를 커다란 흐름으로 살펴보면 60年代에 걸친 經濟成長과 發展, 70年代의 分配와 再分配, 70年代後半에서 80年代初에 걸친 基本生活要件의 充足(meeting basic needs), 80年代初 이후의 構造調整(structural adjustment) 등을 들 수 있다.¹⁾ 이와같은 學界가 지닌 關心의 變化는 時代의 흐름에 따른 流行과 같이 強調點의 差異이지 經濟學說史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듯이 經濟學說에 그 뿌리가 없는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다. 다만 學問의 進化過程에서 時代의 背景에 따라 강조되고 하나의 進展을 이루는 契機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現象에서 느껴지는 것은 첫째, 學界의 流行에 따라 수많은 學術誌와 著書가 발간됨에도 불구하고 속시원한 現實의 解明과 處方을 내리지 못하고 엉겨주춤한 상태에서 한 流行이 退潮된다는 것과 둘째, 學問의 流行에 있어서도 先後進國間에 상당한 時差가 있다는 事實이다. 前者는 社會科學의 不完全性和 사람의 머리의 限界를 나타내고, 後者는 文明의 흐름에 따르는 時間的 所要 내지는 情報移動의 不完

1) 이러한 力點의 變化는 주로 政策研究를 하는 國際機關이 주도하여 왔고 先進學界에서 도 이러한 흐름을 形成하여 왔다.

全性和 아울러 어떤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學問의 重要性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와같은 전반적인 現象을 전제로 하여 여기서 생각하려는 것은 우리의 經濟成長과 分配에 대한 經濟學的 解明의 考察과 아울러 學術的 分析和 現實과의 乖離를 이루는 一般論의 再檢討와 社會心理의 내지는 行態論의 意味를 부각시키고 現實에 비추어 음미해 보고자 한다. 여기서 이러한 成長과 分配에 관한 함축적 意義를 再檢討함으로써 학문적으로 그 體系가 아직 未完成狀態인 分配論에 대하여²⁾ 하나의 整理와 새로운 出發點을 정리하였으면 한다. 또한 나아가 우리가 당면한 時代的 課題 가운데 가장 중요한 課題의 하나인 成長과 分配의 調和를 모색하는데 있어서 다소 도움을 주고자 한다.

Ⅱ. 經濟學界의 一般認識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世界 各國에서 先成長・後分配를 指向하는 데 있어서 두가지 論據가 지배적으로 指示되어 왔다. 첫째 論據는 최소한 發展初期에 있어서 衡平指向的 政策은 케인즈의 限界貯蓄性向이 작용하여 國民貯蓄을 감식하고 投資財源調達에 否定的 影響을 미치며 나아가 成長과 分配가 得失關係를 이룬다는 立場이다.³⁾ 이에 의하면 成長과 分配는 두 마리의 토끼를 쫓는 것과 같이 둘을 쫓다보면 하나도 잡지 못하거나 스리랑카(SriLanka)와 같이 低所得가운데 가난의 配分을 이루기 때문에 先成長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한다.

둘째 論據는 이른바 쿠즈넛츠의 U字型假說이 함축하는 바와 같이 成長이 지속됨에 따라 所得의 擴散效果(tricklingdown effect)로 中進國水準에서 악화되었던 分配가 先進國으로 진입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改善된다고 한다.⁴⁾ 이러한 論據는 신랄한 論理的 檢討를 거치지 않고 學界의 大家가 發說하는데 따라 그들이 지니는 權威로 敎條의으로 추종되어 오지 않았나 생각된다. 여기에서 두 論據의 비판적 檢討를 시도하여 成長과 衡平은 調和가 가능한 發展目標이며 政策目標임을 反證해 보려고 한다.

1. 成長과 分配의 相衡(反論 1)

상술한 바와 같은 첫째 論據에 대하여 적어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側面에서 그

2) Atkinson, A.B., (1975). Sahota, (1978).

3) Kaldor, N. (1966). Meads, J.

4) Chenery, H.B. et al., (1974).

妥當성이 檢討되어야 하겠다. 첫째는 케인즈의 限界消費 내지는 貯蓄性向의 實證의 妥當성과 둘째는 開途國에서 貯蓄—投資의 連繫성과 셋째는 經濟循環關係에서 成長과 分配의 表裏關係의 看過 등이다.

먼저 케인즈流의 所得水準과 限界貯蓄性向이 正의 函數關係에 있다는 假說은 이미 프리드만의 恒常所得假說이나 듀젠베리의 相對所得函數論에 의하여 이미 中級巨視經濟學에서 그 實證的 妥當성이 論難이 있는 것으로 定說化되어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家計調査結果에 의하면⁵⁾ 低所得階層을 제외하면 平均貯蓄率에 大差가 없으며 庶民階層의 貯蓄을 겨냥하여 景氣와 관계없이 어느 銀行보다 급성장하여 온 國民銀行의 實績이 또한 이를 간접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다만 最低所得階層에 나타나는 負의 貯蓄은 分配에 대한 政策的 配慮가 결여됨으로 인한 미흡한 所得水準에 기인하는 것인지 貯蓄意慾의 미흡이나 도의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展示消費性向에서 연유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最低所得階層의 貯蓄不振으로 分配의 優先順位를 뒤로 한다면 막스主義者의 비난을 면치 못하는 최악의 資本主義의 處方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投資財源이 되는 貯蓄增大를 위한 後分配는 케인즈의 理論의 世界에서나 容認될 수 있지, 現實性은 결여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貯蓄과 投資의 連繫性에 대하여서도 최소한 開發途上國의 現實에 비추어 심히 懷疑의인 立場을 취할 수 밖에 없다. 低所得—低貯蓄—低投資—低所得이 이루는 이른바 貧困의 惡循環이 現實의 妥當성이 있다고 假定하면, 수많은 開發途上國이 오랜 동안 經濟成長을 위한 政策的 努力을 경주한 것에 비추어 財政, 金融政策手段이나 通貨改革에 의한 強制貯蓄을 통하여 貧困의 惡循環에서 脫皮한 事例가 몇 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事例를 찾지 못하는 것은 開發途上國에서 貯蓄과 投資의 連繫性이 貧弱하거나 없음을 示唆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開發途上國을 資本財의 生産能力과 外貨의 稼動能力에 限界를 지닌 經濟構造로서 규정하면 開發途上國은 그 定義上 貨幣의 貯蓄을 實物的 投資로 전환시킬 수 있는 連繫能力을 지니지 못한다고 하겠다.⁶⁾ 다만 가능한 것은 開放經濟體制아래 海外需要가 있는 輸出商品과, 剩餘量이 있을 경우 획득한 外貨로서 資本財를 輸入하여 貯蓄과 投資의 連繫性을 確立할 수 있다. 開發途上國의 이러한 現實的 制約은 經濟學者가 지닌 貨幣的 幻想으로 흔히 看過되는 점이라고 하겠다.

成長과 分配를 相衡關係로 보는 視角은 이 두 가지를 獨立된 現象으로 보는 것을

5) 經濟企劃院, 『都市家計年報』, 各年度.

6) 이 때문에 인플레이를 통한 強制貯蓄이나 通貨改革이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고 하겠다.

함축적으로 前提하고 있다. 그러나 成長을 生産의 增加와 同意語로 해석하고 經濟現象을 原論의으로 循環의 흐름(circular flow)로서 把握하면, 成長과 分配는 같은 經濟循環의 다른 側面이지 결코 別個의 것이 아니다. 즉 成長으로 기록되는 生産은 동시에 分配되며 또한 支出되어야 經濟循環이 이루어진다.

다만 이 세 가지 側面 가운데 生産活動이 原動의이고 經濟學에서 生産을 重視하여 왔기 때문이지, 分配와 支出이 從屬的이거나 그 重要性이 낮기 때문인 것은 아니다. 論理的으로 經濟學의 궁극적인 關心을 無限의 慾求와 有限의 그 充足手段과의 갈등 관계 가운데 效用을 極大化하는 學問體系로서 把握하면 消費活動과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된 分配과 支出에 대하여 學界의 더 세심한 關心이 集中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된다.

이상과 같이 보면 先成長・後分配의 論據로서 成長과 分配는 相衡的이라는 立場은 分析的 뒷받침이 부족한 극히 皮相적인 主張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主張은 經濟現象을 偏向的으로 보거나 分配問題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先進國經濟學者의 안일하고 지나치게 樂觀的인 立場이 아닌가 생각된다.

2. 所得擴散效果(反論 2)

쿠즈넛츠의 經濟成長理論은 國民所得의 推計와 分析을 중심으로 資本主義經濟의 形成과 成熟을 대단히 긴 歷史的 視角에서 보고 있다.⁷⁾ 따라서 그의 長期分析은 수십년에 그치지 않고 적어도 一世紀內外 또는 그 以上の 期間을 分析의 對象으로 삼고 있는 것이 特徵이다. 成長과 分配에 관한 그의 이론바 U字型假說도 이러한 맥락에서 解釋되어야 하며 따라서 그의 假說을 오늘날의 開發途上國에 적용하는 것은 대단한 注意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假說은 所得擴散效果와 연결되어 開發途上國의 成長과 分配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發展初期에는 점차 惡化되었다가 改善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一般的인 傾向이다.

여기서 注意가 필요한 것은 所得擴散效果가 함축하는 論理와 쿠즈넛츠의 假說에 작용하는 要因이 직접적인 關係가 약하다는 점이다.

즉 前者에 있어서는 成長에 따라 高所得階層의 所得이 먼저 증대하고 필연적으로 低所得層의 所得이 뒤따라 증대하여 分配의 惡化가 改善을 이룬다는 說明論理인데 반하여 後者는 人口增加의 둔화에 따라 勞動力不足現象에 따른 雇傭增大와 低賃의 解消, 最低賃金制의 導入, 社會保障制度의 定着 및 發展 등으로 成長에 따른 低所得層의 所得彈力性이 상대적으로 보다 큼으로써 일어나는 것으로 說明되고 있다.

7) Kutznet S. (1963)

물론 이 두 가지의 說明論理는 한 가지 共通點을 지니고 있는 바 이는 成長初期에 있어서 完全 및 不完全失業者에게 雇傭機會가 주어지는데 따른 勤勞所得의 擴散效果이다. 그 이외의 作用要因은 전혀 다르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所得擴散效果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크게 問題視되는 것은 高所得家口와 低所得家口의 所得이 갖는 量的差異가 그 質的構成에 있어서 크게 달라 擴散效果가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事實이다. 이는 高所得者일수록 勤勞所得에 비하여 財産所得의 비율이 크며 成長에 따라 富와 財産形成과 그 速度가 經濟學이 전면적으로 도의 시하고 있는 非正常的인 資本增殖(Capital gains)이라는 다른 經路로 이루어지고 富와 財産의 集中 또한 그 정상적 果實인 어떤 高級人力으로서라도 벌 수 없는 엄청난 금액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⁸⁾ 이리하여 經濟理論이 다루고 있지 않은 貧困과 飢饉의 世襲化 現象이 常識化될 정도로 비일비재한 事實로 나타나고 있다.

換言하면 所得擴散效果는 “3代 富者가 없다”라는 俗談이 통용되던 時代에는 說明論理로서 妥當성이 있으나 天災地變이나 當事者가 미치지 않은 한 영원한 富者도 있을 수 있는 近代社會에서 所得擴散效果는 제한적인 영향만을 미칠 수 있으며 分配에서 오는 中進國의 갈등을 풀 수 있는 강력한 作用要因은 될 수 없다. 특히 財産增殖과 危險分散과 財産管理의 制度的裝置가 整備되고 資本移動과 活用이 高度化되는 오늘날 거의 무한에 가까운 高所得者의 財産所有慾이 自制되고 高所得者의 所得의 흐름이 넓쳐 低所得者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은 베버의 淸教徒의倫理가 지배하는 世界이지 現實의인 資本主義의 世界와는 거리가 멀다고 하겠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지적해 두려는 것은 長期的으로 쿠즈넛츠의 U字型假說이나 中・短期的으로 所得擴散效果가 현실적 의미를 갖기 위하여는 한 두 가지 決定的 要因에 의존할 수 없고 여러가지 要因이 複合의이며 補完的으로 작용하도록 多角的인 配慮가 뒤따라야 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뜻에서 “가난은 하늘도 돕지 못한다”는 말과 같이 그 解決이 어렵고 많은 要因 가운데 한 두 가지가 個個人的 形편에 따라 치명적인 要因으로 作用할 수 있다. 따라서 所得擴散效果가 實效를 거두어 配分改善을 도모하려면 하나하나의 要因이 이루는 가랑비에 옷이 젖지 않도록 配慮하되 分配過程에서 누가 왜 成長의 果實을 점유하는지에 대한 正當性을 부여하는데 注意해야 할 것이다.

8) 論議를 간단히 하기 위하여 大學敎授의 月給이 100萬원이라고 하고 金利가 2%라면 그의 收入을 資本化하면 1億원이 된다. 어떤 財閥의 貴公子가 하루 100만원을 쓴다고 하면 한달에 3千만원을 쓰는 것으로 되어 그의 元金은 30億원이면 된다. 30億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나라에서 富者가 지닌 것에 비하면 큰 돈이 되지 못한다.

Ⅲ. 行態論의 認識

分配問題를 포함한 當面問題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오늘날 近代經濟學이 無氣力한 것은 그 理由가 여러가지 있겠으나 두 가지 중요한 것은 첫째, 經濟學이 分析的으로 지나치게 計量化되는 과정에서 극히 非現實的인 假定과 制約을 가하는 것과 둘째, 計量分析에 치중하는 過程에서 經濟活動의 行態論의 側面을 도외시하며 단순한 經濟的 投入과 產出關係로 보는 것이다. 지나친 計量分析과 이에 필요한 制約的 假定이 經濟分析에 어떠한 危險負擔을 주고 있는가에 대하여는 紙面關係로 論議를 과하기로 하고⁹⁾ 여기서는 經濟學에 대한 行態論의 視角과 그 必要性을 우리나라에 있어서 分配問題와 관련지워 생각해 보기로 한다.

經濟與件이 비교적 有利한 開發途上國이나 成長要因을 고루 갖춘 美國이 그렇지 못한 나라에 비하여 經濟實績이 뒤떨어지거나 經濟的 困難에 처하여 있다는 분명한 事實은 投入·產出關係를 단순한 技術的 變形(technical transformation)을 나타내는 것으로 다루고 있는 經濟分析이 설득력있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바다.¹⁰⁾ 같은 脈絡에서 所得分配의 國際比較에서 所得分配의 實相으로 보아 相對的 衡平性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所得分配問題가 가장 큰 경제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것은 客觀的 現實과 主觀的 反應에 커다란 乖離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觀點에서 個人이나 集團으로서 사람의 行爲가 결과하는 社會的 現實을 그 연구 대상으로 하는 社會科學으로서의 經濟學에서는 직접적인 生産要因과 아울러 KAP로 생략표시되는 知識, 態度 및 認識의 精神的, 心理的 側面과 社會的 行爲에 틀을 제공하는 制度的 側面이 인정되고 經濟的 產出은 이 세 가지가 交互作用하여 結果하는 것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開發途上國의 經濟成長過程에서 分配의 變化와 관련하여 社會心理的 要因의 영향을 감안한 것은 허쉬만이 가장 처음 試圖한 것으로 보인다.¹¹⁾ 여기서 허쉬만의 터널效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 成長과 分配의 問題를 照明해 보고 그의 假說을 보다 현실적으로 再吟味해 보기로 한다.

1. 不平等에 대한 容認度의 變化

허쉬만은 開發途上國이 低開發狀態에서 先進國으로 발돋움하는 것을 긴터널을 벗

9) 朱鶴中, (1986).

10) 朱鶴中, (1987).

11) Hirschman, A.O. (1973).

어나는 것으로 비유하였다.¹²⁾

긴터널은 2次線 一方通行으로 차의 움직이는 速度를 經濟成長으로 보고 成長初期는 兩車線의 정체로 보고 있다. 어두운 터널에서 차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지친 나머지 다른 차선의 차가 움직이는 그 자체, 여기서는 成長만으로도 곧 내 車線에도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期待하여 不平等度에 대한 容認度가 上昇한다. 그러나 成長이 계속되어 차는 빠져나가는데 자기 차선의 움직임이 부진하면 期待感이 좌절로 변하고 不平等에 대한 容認度가 전반적인 生活向上에도 불구하고 급기야 분노로 변하여 社會的, 政治的으로 不安하게 된다고 한다. 또한 이런 現象이 계속되면 國民經濟 全體로서 先進化를 기할 수 없다.

허쉬만은 이러한 現象을 확대 해석하여 60년대의 模範開發途上國으로 예찬되던 파키스탄과 中南美諸國이 不平等度의 容認度가 급격히 저하하는데 따라 經濟的, 社會的, 政治的 不安으로 연결되어 그 成長의 原動力마저 상실하고 이른바 “發展의 狼狽”(development disasters)로 전락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分配와 衡平에 대한 社會心理的 現象이 60年代初부터 高度成長을 지속하여 왔던 우리의 經濟社會에도 70年代 後半頃부터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된다. 이리하여 최소한 計測된 分配는 80年代에 이르러 다소 改善되었고 우리의 所得分配는 실질적으로 많은 開途國보다 상대적으로 좋음에도 불구하고 國民이 피부로 느끼는 分配는 더욱 악화된 것으로 感知하고 있다. 또한 이렇기 때문에 오늘날 經濟界에서도 成長과 衡平을 主題로 하는 學術的 모임이 있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허쉬만의 탁월한 식견에 대하여 크게 共感を 하면서도 分配와 相關된 現實性을 감안하여 허쉬만의 터널效果와 不平等度의 容認度에 대하여 다소 視角을 달리하여 부연하여야 할 必要가 있다고 본다.

2. 허쉬만의 正義論的 解釋

計測된 分配와 피부로 느끼는 分配와의 乖離에는 所得의 計測이라는 經濟上의 問題도 있겠으나 根本的으로는 近代經濟學의 學問體系의 所得分配 研究에서 所得의 概念이 비현실적이기 때문이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 이 때문에 主題發表者는 현재 分析에 이용되고 있는 所得의 네 가지 概念과 앞으로 實用化하여야 할 세 가지 概念을 강조한 바 있다.¹³⁾ 이 가운데 가장 크게 理論과 現實의 乖離를 이루는 것은 發

12) 터널에 비유하게 된 이유는 그가 하바드大學에서 가르칠 때 보스톤 國際空港으로 가는 2次線 1方通行터널에서 교통체증에 시달렸던 것에 着案하였다는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

13) 朱鶴中, (1979).

表者가 購買力所得이라고 한 地下經濟에서 창출된 所得이다. 여기에는 資本利得, 不當利得, 不法利得 등을 정상적인 所得에 합산하여 分析의 對象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要旨가 된다.

여기서 논의할 허쉬만의 正義論的 解釋은 부당한 地下經濟所得의 존재를 전제하여 이것이 不平等度에 대한 容認度에 미치는 영향과 이로 인한 社會心理的 反應과 行爲가 經濟成長 및 그 原動力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려는 데 있다. 不當所得을 감안하면 무력한 國民 대다수가 느끼는 유력한 소수의 國民이 탄 車의 움직임이 더욱 빠르게 나타나며 그 合法性에 承服하지 못함으로 不平等度에 대한 容認度는 더욱 더 크게 低下할 것이 분명하다. 더우기 車의 움직임이 公權力을 배경으로 秩序確立의 代行者인 交通巡察 또는 政府에 의하여 人爲的으로 操作된다고 하면 國民大多數의 不滿은 더욱 거세어 질 것으로 생각된다.

發展의 狼狽에 대하여서도 하나의 正義論的 解釋을 덧붙일 수 있다. 그래서 社會의 秩序組織이나 紀綱이 해이할 경우 분명히 2次線 1方通行이면 黃色줄이 그어져 있을 것이나 이를 법하게 되고 이에 따라 事故의 위험이 있고 事故가 나면 두 車線 다 오지부동의 交通混亂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러한 行態性은 오늘날 서울의 交通現實에서 흔히 경험하는 바이며 한 눈으로 볼 수 없는 國民經濟의 움직임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상 우리 經濟가 지닌 社會的 不條理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改善 되고는 있으나 아직도 광범위하게 널려 있다. 특히 이러한 現象은 認許可와 같이 公權力을 배경으로 하여 은밀이 이루어지며 不實企業整理와 같이 行政府의 獨斷으로 행해지고 交通事故의 처리와 같이 공공연하게 賂物이 受授되기도 한다. 또한 서울의 큰 호텔은 市有地를 잠식하여 건설되고 여러 建物이 竣工檢査를 마치지도 않고 利用되기도 하나 庶民의 住宅改造나 零細民의 河川부지 이용은 公務員의 심한 監視속에서 適法節次를 받아야만 可能하다. 때로는 法도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눈에 띄이게 휘어져는 우리 現實이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國民은 富의 蓄積과 高所得을 疾視하고 國民生活 全般이 대폭 向上되었음에도 疎外感과 挫折感을 더욱 느끼게 된다고 하겠다.

IV. 政策的 示唆와 對應

이상과 같이 보면 成長과 分配의 問題는 순수한 經濟分析의 次元을 벗어나 社會心理的, 政治經濟學的, 理念的 次元으로 擴大되어 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當面한 成長과 分配間의 갈등을 해소하여 國民大多數의 理解와 納得을 얻기 위해서는

단순한 좁은 經濟學的 處方과 아울러 經濟政策의 土臺를 이루는 KAP과 秩序와 制度와 나아가 이들과 經濟投入物이 이루는 經濟行態까지 넓게 보는 가운데서 問題解決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으로 본다. 여기서는 주로 政策의 示唆로서 成長과 衡平의 補完關係와 現時點에서 우리가 중요시 하여야 할 政策的 對應을 결론적으로 몇 가지 提示하기로 한다.

1. 成長과 衡平의 補完關係

이미 앞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經濟循環過程에서 生産, 分配, 支出이 같이 이루어지고 中短期에 있어서 所得擴散效果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前提하면 成長과 衡平의 調和가 추구되어야 한다. 특히 經濟分析의 對象이 되는 投入・產出關係를 넓게 行態論的 視角에서 본다면 이 時點에 있어서 우리 經濟의 지속적인 成長은 종래의 接近方法으로는 限界點에 다달았다고 할 수 있고 地下經濟의 地上經濟化, 前近代의 制度의 改善, 意識과 態度의 健全化에 의한 엄청난 社會的 費用의 節減이 없이는 生産性向上과 國際競爭力의 強化와 나아가 지속적 經濟成長을 기할 수 없다.

여기서 우리 주변의 事例 하나하나를 모두 들어 말할 수 없으나 줄속으로 닦아 놓은 道路와 병목현상, 世界 어느 나라보다 높은 高速道路通行料과 그 收入에서 높이 차지하는 補修維持費, 펄프를 收入하는 나라에서 의미없는 稅制上 家族控除를 위하여 침부하여야 하는 住民登錄原本, 공공연한 交通違反處理費, 日本과 같은 接待費의 稅制上 控除, 實效性を 거두지 못하는 번잡한 添附書類 등등은 단순히 直接費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에 부수되는 社會的 間接費用까지 포함하여 생각되어야 한다.

近間に 활발하여진 勞動爭議에 있어서도 오랜동안 勞政關係에서 勤勞者가 權益을 찾을 수 있는 機會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분출되는 要求와 激情은 同情의 여지가 있으나 會社의 什器나 施設物을 파괴하거나 勞使間의 對話에서 우리의 美風良俗을 저버린 態度는 正當化될 수 없다. 더우기 이러한 爭議는 현시점에서 職種間, 學歷間 賃金差異가 가장 심한 중소기업이나 零細企業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同職種, 同學歷에서 給與水準이 높은 大企業에서 격심하게 나타난다는 것은 大企業의 영향력에 힘입은 또 하나의 社會勢力에 의한 一部 勤勞階層의 特權化가 될 危險性마저 없지 않다. 따라서 勞動運動의 指導者들도 勞動爭議에 관련된 一部 勤勞者의 權益確保를 위하여 전략적으로 유리한 高地만 점하려는 小極的 立場에 설 것이 아니라 勞使紛爭이 우리의 國際競爭力과 經濟成長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競爭國인 日本이나 臺灣이 우리의 紛爭을 보고 快哉라고 하면서 내심 기뻐하지 않을가도 反省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勞使紛爭에도 中庸의 슬기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

社會的으로 正當化할 수 없는 所得과 富의 蓄積은 資本主義體制를 賤民化하며 나아가 資本主義體制의 利點을 둔화시키고 内部的 矛盾을 심화시킨다. 한 企業의 生産性向上도 勞使의 合心과 士氣振作이 필수요건이며 한 나라의 國際競爭力도 國民과 企業과 政府가 合理的인 經濟行爲를 하는 데에서 強化될 수 있다. 또한 형평에 어긋나는 成長의 結實의 配分은 형평스럽지 못하게 지나친 몫을 차지한 階層은 자기의 몫을 값지게 쓰지 않아 비진전한 消費行爲가 빚어지는데 반하여 자기 몫보다 못한 것을 차지한 階層은 配分秩序에 승복하지 못함으로써 配分에서 얻은 效用은 그렇지 못한 狀況에서보다 적어 國民全體의 福祉水準은 같은 수준의 國民所得이더라도 國民經濟 全體로서 적게 평가되는 結果를 초래한다. 따라서 成長의 궁극적 目的을 충실히 하는 데에도 衡平의 準則은 크게 양보하여서는 안된다.

2. 政策的 對應¹⁴⁾

經濟社會發展은 資本主義體制內에서 進化論的으로 추구되어야 한다. 人類가 설익은 共產主義理念으로 資本主義社會의 성숙과 붕괴과정을 생각해 보려고 하였으나 완전히 失敗하고 오늘날 共產主義國家도 個人的 創意와 利潤追求를 인정하려는 改革을 서두는 이때에 資本主義體制를 否定하는 급진적 改革이란 생각할 수 없다.

資本主義體制 아래에서도 사람의 智慧와 吸收能力(absorptive capacity)으로 보아 秩序政策을 제외하고는 급진적 改革이란 副作用이 더 따른다는 것은 반박된 歷史的 敎訓이다. 사실상 오늘의 與件이란 오랜 歷史의 뿌리가 있고 風霖의 年齡으로 굳은 것이 凝縮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改善하기란 대단한 政策的 意志와 오랜 기간에 꾸준한 努力을 必要로 하며 社會淨化나 새마을이니 하는 깃대를 내거는 걸치레로 實效를 거둘 수 없다. 또한 여기서 제시되는 中長期政策도 그 하나하나를 細部的으로 전개하는데 있어서 어느 階層이 왜 혜택을 입게 되는가에 대한 正當性을 확립하는데 細心한 注意를 必要로 한다.

政策的 對應으로 가장 시급한 것은 配分秩序의 是正과 確立이다. 이는 일찌기 아담 스미스가 力說한 政府의 經濟的 機能에 바로 지적되어 있으나 우리가 흔히 財政學에서 政府支出의 하나의 根據로 가볍게 알고 있는 바다. 스미스는 主權(sovverign)의 세 가지 義務 가운데 正義의 實現을 강조하였다. 즉 主權은 可能的 限 社會의 모든 構成員이 다른 사람의 不義나 억압으로부터 保護되어야 하고 “從屬을 초래하거나 많은 兄弟뒤에 君臨하는” 現象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고 力說하고 있다.¹⁵⁾ 스

14) p. 95에서

15) Smith, A. (1776).

미스의 이러한 지적은 단순히 不法과 暴力에 의한 治安과 司法의 事項뿐만 아니라 經濟面에서의 不法과 不當과 正義스럽지 못한 分配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計測된 分配과 忒부로 느끼는 分配의 乖離에 대하여는 經濟學者가 질 責任은 이를 설명하는데 있고 그 乖離의 解消는 실질적으로 主權이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政策基調 아래 勤勞階層과 그 階層內部的 分配를 개선하기 위하여는 우리의 經濟成長段階에 상응한 最低生活를 보장할 수 있는 生活給이 定立되어야 한다. 生活給의 給與體系는 심한 學歷別, 職種別 賃金差異緩和를 의미하나 무분별하게 平均値를 강요하는 그것도 아니다.

여기에서는 삶의 週期에 따른 生活의 必要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年功에 의한 給與增額이 크게 작용하여 高卒 4年 經歷者의 급여가 大卒新入社員의 그것을 약간 上廻하고 國民의 높은 教育을 수용할 수 있게 教育費負擔을 감당할 수 있는 昇給을 보장하되 大卒者는 昇進이 빠르고 最高經營者까지 될 수 있는 確率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報償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給與體系로의 轉換은 既得權의 양보라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적어도 5~10年間에 걸친 점진적 調整으로 대응되어야 할 것이다.

세제로는 資本主義體制가 그 根幹으로 삼고 있는 私有財産制度에 관한 衡平上 調整裝置의 實效化이다. 近代社會에서 物的資本의 蓄積量은 엄청나 人的資本만을 소유한 階層이 사람으로 다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도 현재 貨幣數値로서 10億원 이상의 財産을 지닌 사람보다 所得이 클 수 없다. 이리하여 富益富의 現象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法の 精神은 누진적 相續稅와 贈與稅를 制度化하고 있다. 問題는 이것이 地下經濟化하여 實效性이 없다는 데 있다. 이 節에서 政府의 秩序守護者로서의 機能을 제일 먼저 강조한 것도 富의 地域間的 移轉이 所得分配과 再分配에 가장 큰 制約을 이루고 결정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國民大多數가 가난하게 되는 제일 큰 原因은 一生을 통하여 여러가지 社會的 危險의 犧牲者가 되기 때문이므로 이로부터 保護될 수 있는 制度的 裝置, 즉 社會保障制度가 정비되어야 한다. 社會保障에 대하여 時期常早論이나 英國病警戒論 등을 논의하며 政策當局은 오늘날까지 극히 消極의 立場을 취하여 왔고 현재 도입된 醫療保險制度, 國民年金制度, 産業災害保險制度도 크게 미흡함을 否認할 수 없다. 이러한 方法과 制度上 未恰은 政府의 役割과 機能에 대한 그릇된 認識에서 기인한 것으로 본다. 政府는 民間部門에 의존할 수 없거나 民間部門을 補完하는 機能을 하되 그 必要는 가장 취약한 階級の 그것부터 充足될 수 있도록 配慮되어야 한

다. 오늘날 올림픽을主催하고 國防費를 GNP의 약 6%, 士兵人力의 機會費用을 환산하면 그 以上の 國防費를 부담하는 國民經濟에 時期常早論은 問題意識과 優先順位를 달리한 福祉와 民生問題의 輕視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英國病警戒論도 구더기 무서워 장을 못담구겠다는 愚論이며 각종 公害와 物質文明의 副作用을 유발하는 經濟成長에 대하여는 같은 反論을提起하지 않는지 論理의 一貫性이 의심된다.

이상과 같은 成長과 分配를 조화시키려는 政等對應은 한정된 紙面에 基本方向만 體系化를 갖춘 視角으로 제시한 것으로 하나하나의 政策手段과 制度改善이 分配와 관련되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하여도 過言이 아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政策手段이나 制度變化가 대다수 國民인 中產層 以下에 어떠한 역할을 미치는지와 그 說得力은 바른 것인지 충분한 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V. 要約 및 結語

70年代에 學界에서 크게 주목을 끌었던 成長과 衡平의 問題도 속시원한 學問的 解明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基本生活要件의 充足(meeting basic needs)과 構造調整이라는 學問的 流行이 뒤따르고 있다. 이와 같은 流行에 따른 關心의 變化는 불가피하고 또 있어야 한다. 그러나 Sahota가 지적한 바와 같이 所得分配라는 바퀴를 두고 무엇이 바퀴의 軸인지 또 실인지도 구분하지 못하고 Atkinson이 지적한 바와 같이 所得分配라는 중요한 問題에 대한 經濟學의 解明이 미진한 상태에서 좋은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자리옮김을 하는 것은 매우 석연치 않은 學問的 態度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물론 外國에 있어서도 所得分配 뿐만 아니라 經濟現象을 權威있는 學者의 假說에 크게 의존하며 단순히 計量的 投入과 產出의 問題로 한정하여 보는데 經濟學의 無氣力이 基因하지 않나 생각된다. 論理的으로 검토해 보면 先成長・後分配의 持論은 經濟循環으로 보아 동시에 이루어지는 현상이며 所得擴散效果도 中・短期的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樂觀的 期待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計測된 分配과 피부로 느끼는 分配와의 乖離는 허쉬만의 所論의 妥當함을 알 수 있게 하고 分配問題는 좁은 經濟的 處方과 對應에서 社會心理的 正義論의 次元과 社會秩序까지 포괄하여 넓게 對處되어야 하겠다.

끝으로 이 問題를 다루면서 얻은 두 가지 느낌을 참고로 밝혀두기로 한다. 分配에 대한 對方은 크게 네 가지를 제시했으나 衡平도 物價나 生産性이나 國際競爭力과 같이 수많은 要因이 交互作用하여 결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나기보다 가랑비에 옷젖는 것과 같은 問題解決의 接近方法이 보다 적합하다. 더우기 오늘의 制度와 意識과

行態는 歷史의 壓縮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는데 많은 時間과 勞力이 소요된다. 이에 대한 經濟學者의 信念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둘째로 經濟學의 危機에 직면하여 經濟學者가 갖추어야 할 要件이다. 일찍이 마샬이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마음을 지녔하였다. 私見으로는 第3의 要件이 필요한 것 같다. 그것은 현실을 굳게 디딘 튼튼한 다리이다. 불행히도 오늘날의 經濟學者는 순수이론에만 밝은 큰머리만 지닌 空想科學小說에 나오는 畸型兒가 아닌가 생각된다. 經濟學者의 學問하는 姿勢에 均衡과 調和가 대단히 이롭다고 하겠다.

參 考 文 獻

1. 經濟企劃院, 『都市家計年報』, 各年度
2. 朱鶴中, “所得分配研究에 있어서 所得의 概念과 決定要因”, 朱鶴中 篇, 『韓國의 所得分配과 決定要因(上)』, 1979.
3. 朱鶴中, “資本소득推計와 分析上의 問題點”, 『韓國開發研究』, 第8卷 第3集, 1986.9.
4. 朱鶴中, “近代經濟學의 行態論의 小考”, 『海國 朴基赫教授 停年記念論文集』, 1987.
5. 朱鶴中, “第6章 所得分配”, 朱鶴中 外著, 『韓國經濟의 理論과 現實』, 서울大出版部, 1987.
6. Atkinson, A.B., *The Economics of Inequality*,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75.
7. Chenery, H.B., et al., *Redistribution with Growth*,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74.
8. Hirschman, A.O., “Changing Tolerance for Inequality in Development,”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Nov., 1973.
9. Kaldor, N., “Marginal Productivity and Macro Economic Theories of Distribution, Comments on Samuelson and Modigliani,”; *Review of Economic Studies*, 1966.
10. Kuznets, S., “Quantitative Aspects of Economic Growth of Nations VIII: Distribution by Size,”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Jan. 1963.
11. Smith, A.,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Book V. 1776.
12. Sahota “Theories of Personal Income Distriaution; A Survey,” *The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XVI, No. 1, March, 1978.